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20주일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계획하는 방식도 달라 가끔 어리둥절하게도 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을 성격유형별로 나누기도 한다. 서로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약 30년 전에 많은 신부님들이 성격유형을 검사받은 후, 여러 상황을 주어서 토론하게 했는데 웃어 죽는 줄 알았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 모습을 서로에게서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 유형별로 사람들을 나누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존재형의 인간과 소유형의 인간이다. 존재형의 인간은 나-너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우정과 약속, 의리를 지켜 마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힘든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순교자들의 삶을 따르려 노력한다. 흥부의 모습을 좋아한다. 반면, 소유형의 인간은 나-그것이라는 사무적인 만남을 중시한다. 만나서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서 관계를 맺고 끊고 판단한다. 이익이 되는 관계는 유지하지만,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는 것이다. 어렵게 사는 이들을 무시하고, 순교자들의 삶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배는 부를지라도 가슴이 고픈 세상을 만드는 모습이다. 놀부의 모습을 좋아한다. 현대산업사회는 갈수록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형의 인간보다는 매사에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는 소유형의 인간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이상한 말씀을 들었다. 평화의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분열을 주려고 오셨다 말씀하신다.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려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야! 뭐 사서 고생하냐,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잘 먹고 잘살지 왜 가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장은 힘들었겠지만,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기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노아도 마찬가지다. 큰 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했기에 홍수 속에서도 배 안에서 참 평화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순교성인들도 마찬가지다. 국가에 반역이라 할지라도, 잡혀서 술한 고초를 겪었을지라도, 목숨까지 내놓았을지라도, 하느님의 명령에 충실함으로써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겠는가? 하느님과 나 사이에도 이익만 추구하는 소유형의 인간으로 소유형의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형의 인간으로 존재형의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 간의, 식구들 간의 분열이 생기는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분열과 갈등을 겪겠지만 존재형의 인간으로 존재형의 신앙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구성진 율리아노 신부 | 명서동본당 주임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예레 38,4-6,8-10
화 답 송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 2 독 서	히브 12,1-4
복 음	루카 12,49-53

종교 간 대화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Unity-in-diversity)를 추구한다.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종교 간 대화는 모든 사람이 가톨릭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여러 종교의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와 화합을 목표로 한다. 모든 종교는 하나로 일치한다는 종교 혼합주의는 그릇된 이상주의이다. 진정한 종교 간 대화는 자신의 고유한 신앙고백을 벗어난 혼합주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혼합주의는 그 인위적 시도와 거짓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다양한 종교 전통들의 만남을 끝내는 모순적 대립과 분열, 기만과 상호 반대애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교황청 종교 간 대화평의회와 인류복음화성의 1991년 공동 문헌 「대화와 선포」 48항에서도 진정한 '대화'란 거기에 임하는 양편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종교적 신념을 버리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종교 간 대화의 진실성이란 서로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를 피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 종교를 만나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 소명을 먼저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종교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자비를 나누며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진리와 사랑애로의 부르심과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의지에 근거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명시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선언하였다. 과거에는 세례를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세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 마태오 복음 25장 31~46절의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는 심판의 기준은 세례가 아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 즉 우리의 선행이 심판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로 온 인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나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과 일치되어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고 그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맡기셨듯이 우리 역시 교회의 다양한 성사 생활을 통해 은총을 얻어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을 나누며 세상에 희망을 전해 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침묵으로 기다려 주시는 자비로운 마음과 하나 되어야 한다. 자신을 넘어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이들은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나와 다른 너를 받아들일 줄 안다.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나만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이의 구원에 마음을 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웃 종교를 만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토마스 머튼은 종교 간 대화에 나아가는 이들은 자신의 종교 안에서 오랜 수행과 명상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룬 이들에게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종교 간 대화 역시 단순한 이해와 교류를 넘어 더 깊은 영적인 수준으로 들어가야 한다. 교황청 종교 간 대화 평의회에서도 “종교 간 대화는 단순히 서로 간의 이해와 다정한 관계들을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을 위한 상호 간의 증언 안에서 교류와 나눔으로 구성된 훨씬 더 깊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종교인들 가운데 극보수주의자들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 자신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국 다 하느님께로 갈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다. 이를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가톨릭교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사이비 종교도 있고 유사 종교도 있다.

2011년 그리스도인들 간의 협의회에서는 “다원주의 세계에서 ...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종교인들과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쌓아가며, 더 깊은 상호 이해와 화해 그리고 공동선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라고 결의하였다. 그리스도 교회는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연대하고 영적인 교류를 통해 세상의 치유와 평화의 건설,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어머니 마음

문옥영 테오도라 시인/ 가톨릭문인회

“하나야 둘, 하나. 눈 뜨시고요, 활짝 웃어보세요.”

온갖 꽃 장식으로 화사한 가운데 온 가족이 꽃보다 더 화사하게 차려입었다. 구순을 맞이한 어머니를 중심으로 품을 잡고 사진을 찍는다. 코로나로 자주 만날 수 없었던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서로 반가운 손을 마주 잡고 부둥켜안기도 하며 그동안 잘 지냈느냐고 묻고 답하느라 왁자지껄하다. 분위기만으로도 친정어머니의 구순 잔치는 대성공이다.

‘겨울왕국’의 엘사 공주로 변장한 증손녀의 춤과 노래 공연에 이어 각자 준비한 선물을 드린다. 용돈 봉투와 꽃다발에 이어 건강식품을 비롯하여 금가락지와 옷가지며 손편지를 붙여 정성껏 포장된 여러 가지 선물이 어머니 앞에 쌓인다. 자녀 된 우리는 나름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한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만사위의 건배 제안에 따라 “건강을 위하여” “가정의 발전을 위하여”를 외치며 축배를 든다.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폭죽을 터트리며 준비한 음식을 즐겁게 나누어 먹는다. 90년을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사신 어머니에게는 오늘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기념사진을 돌려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머니는 분명 주인공으로 가족들 한가운데 앉아 웃음 짓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활짝 웃지 못하고 있다. 웃는 시늉만 하고 있다. 왜일까?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일까? 무슨 일 때문일까? 자꾸 어머니에게 눈길이 간다. 가만히 살펴보니 어머니는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른다. 가족들이 각자 자유로이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어머니는 손짓으로 막넛사위를 빈 방으로 불러낸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둘의 모습이 보인다. 어머니는 막넛사위의 손을 꼬옥 잡고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 막넛사위는 사위대로 얼굴이 시뻘게져서는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막내 부부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나, 30년도 전에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다 자란 아들이 가끔 부모 사이를 오가며 전하는 안부 정도나 알고 지낼 뿐, 남남으로 산다. 효심 깊은 막내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합쳐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아들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부탁을 한 모양이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란 걸 뻔히 알지만, 우리 모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를 반겨주었다.

어머니 마음에는 이런 막내딸의 일이 가슴에 대못으로 박혀 있었던 모양이다. 나도 모르게 울컥, 응어리가 북받쳐 오른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들로 효도 선물을 드린다 해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뜨거나 가정이 파탄되면 말짱 도루묵이 아닌가? 어머니 마음에는 아들딸들이 먼저 세상을 뜨는 일 없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일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나 보다.



지역민과 함께 문화와 예술로 인간미 넘치는 창녕성당

이준호 라파엘

예술미 넘치는 창녕본당

열대야가 이어지는 칠월의 여름밤에 본당순례를 떠난다. 이번에는 옛 문화재가 즐비한 비사벌의 창녕본당이다. 성당 입구에서부터 붉은 벽돌로 지어진 쌍 종탑이 인상적이다. 근대식 건물이 멋있다고 여기는데 시선은 성모동굴로 향한다. 바윗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지었는데 손길이 많이 간 느낌이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가 본당주보성인인지라 성모동굴은 더욱 특별하게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하 베로니카 전 사무장의 말에 의하면, 한 시간 반 거리의 자하골에서 교우들이 돌을 직접 고르고 리어카에 실어와 조성하였다고 한다. 1964년 그 당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하면서도 깊은 신심과 열정으로 가능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성모동굴은 다른 건물들로부터 독립적인 느낌을 주는 곳이며 영성 충만한 공간으로서 본당의 보물이라 할 만하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예술미도 일조했을 것이다. 성모동굴 아래에 위치한 십자가의 길에는 한 처 한 처마다 화가인 최재상 마티아 주임 신부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개인전을 9회째 열어온 최 신부는 본당의 곳곳에 아름다운 작품을 배치함으로써 교우들의 영성 생활을 돕고 있다. 윤 안젤라 수녀는 성당 안의 감실 또한 둥근 등불 모양으로써 교우들이 전례에 집중하게끔 해 준다고 했다. 성당 곳곳에 자리한 부속물들의 그 형태와 색감이 예사롭지 않았다.

1949년에 본당으로 승격한 창녕본당은 당연히 지역의 중심이지만 같은 군의 영산과 남지 또한 본당이다. 최 신부는 이 또한 창녕지역에 내려진 축복이라 보았다. 일찍이 성 남종삼 요한의 부인과 세 자녀가 귀양 와 10년간 살았던 곳이 창녕이다. 2009년에 본당 설립 60주년을 맞은 창녕본당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곳곳에 예술적 요소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본당을 반석 위에 올린 열정의 인물들

사제서품 이후 첫 부임지가 창녕본당이었던 2대 정하권 플로리아노 신부는 많은 일화를 남겼다. 주변에 흔치 않은 종탑이 두 개인 성당 건축에는 정 신부의 남다른 철학과 실행력이 있었다. 완공이 되기 전에 스위스 유학을 떠났던 그였지만 성당 건립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졌다고 한다.

김정식 암브로시오 사목회장의 말에 의하면, 전쟁 이후의 어려운 시절에 정 신부는 군청을 비롯한 관공서에 강연을 자주 다녔다고 한다. 검은 수단을 입고 나타난 모습이 낯설었지만 대중들은 정 신부의 언변과 지식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 이후 세례 받는 이들이 급증했고 교회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하권 신부가 한 초청 연설만 600여 회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시절 20대 청년이었던 김상수 그레고리오 사목회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성당에서 밀가루를 비롯한 구호물자를 나눠주던 그 시절, 대단히 왕성한 활동을 하며 창녕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살아있는 인물사전이라고 불렸다. 그의 집에는 많은 손님이 드나들었으며, 성산면과 같이 멀리서 온 신자들은 미사를 보고 그의 집에 하룻밤 묵어가는 식객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의 아들인 김인 루도비코도 삼성그룹의 사장으로서는 창녕의 평생대학에 매년 천만 원씩 8년간 후원하여 부친의 행적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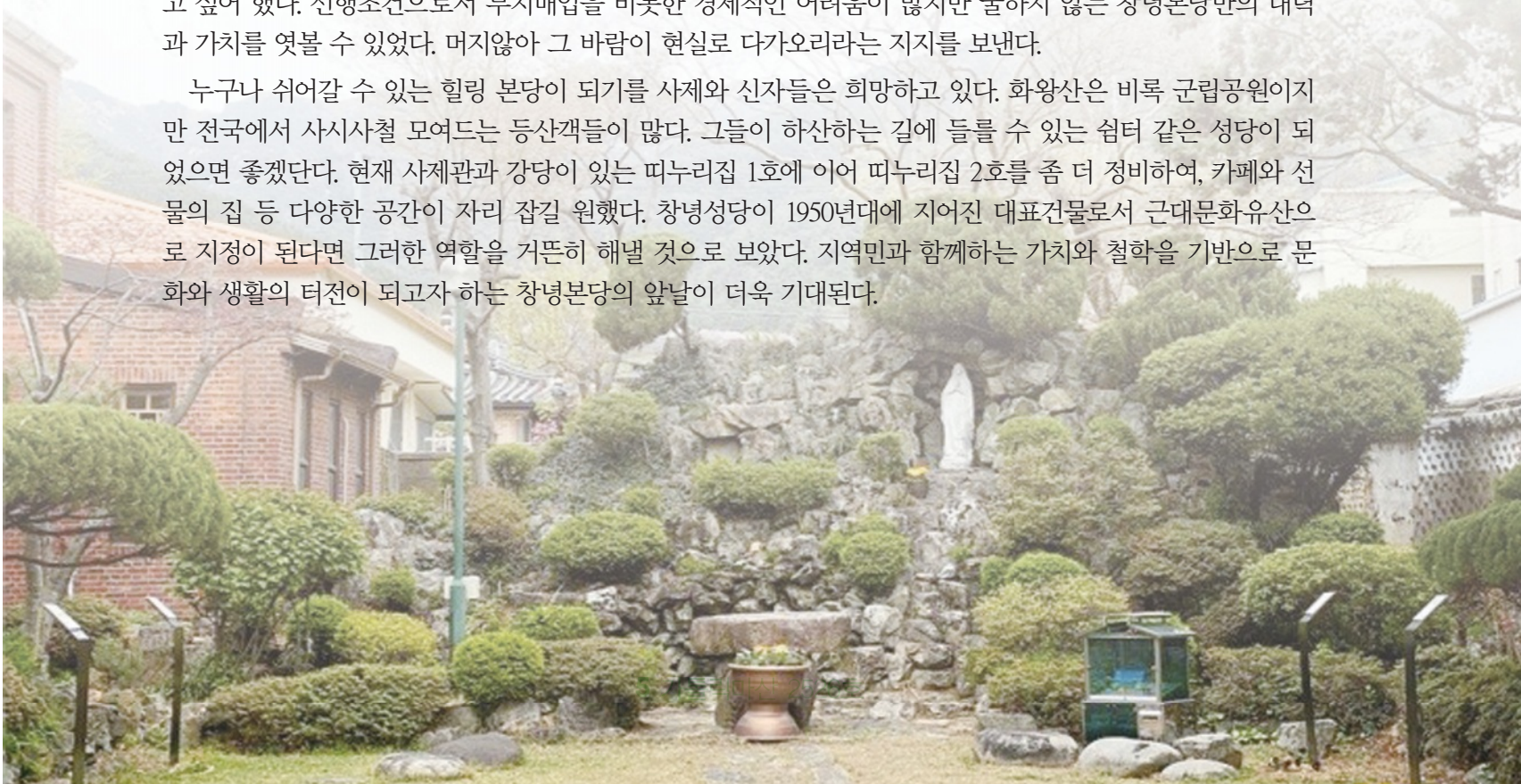
1974년에 조성된 성당묘지 또한 자랑거리이다. 주임 신부 주도로 이루어진 다른 본당의 사례와는 달리 신자들의 자발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지만, 앞날을 내다보는 당시 교우들의 의식과 열정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재상 마티아 신부는 본당에서 걸어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성당묘지에 직접 걸어가곤 하는데, 이곳의 십자가의 길 14처에 그려진 그림도 직접 그렸다. 지금껏 교우들의 장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다.

평생교육을 통한 사랑의 실천

창녕본당이 지역의 평생대학 사업을 시작한 것이 지역 1호라고 한다. 노인들에 대한 관심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 외로운 이웃 어르신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한국사회가 처한 사회구조적인 어려움을 교회가 앞장서 지역민과 함께하고자 한 것이다. 2011년 교장으로 퇴임한 홍 마리 안나의 헌신과 노력이 컸다. 김인 루도비코의 도움으로 더욱 활기를 띠었던 평생교육 사업이 최근에는 코로나로 주춤한 상황이다. 그래도 주임 신부의 소망은 확고했다. 본당의 한 공간을 마련하여 노인들을 위해 돌봄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미사참례와 신앙생활까지 돕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싶어 했다. 선행조건으로서 부지매입을 비롯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굴하지 않는 창녕본당만의 매력과 가치를 엿볼 수 있었다. 머지않아 그 바람이 현실로 다가오리라는 지지를 보낸다.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힐링 본당이 되기를 사제와 신자들은 희망하고 있다. 화왕산은 비록 군립공원이지만 전국에서 사시사철 모여드는 등산객들이 많다. 그들이 하산하는 길에 들를 수 있는 쉼터 같은 성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사제관과 강당이 있는 띠누리집 1호에 이어 띠누리집 2호를 좀 더 정비하여, 카페와 선물의 집 등 다양한 공간이 자리 잡길 원했다. 창녕성당이 1950년대에 지어진 대표건물로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러한 역할을 거뜬히 해낼 것으로 보았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가치와 철학을 기반으로 문화와 생활의 터전이 되고자 하는 창녕본당의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8월 16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청년성서 49차 탈출기연수

일시: 8월 18일(목) 19:00~21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탈출기 성경그룹공부를 수행한 청년

문의: 대표봉사자 010·2961·9918

교구 성경 공부 개강

일시: 8월 30일(화) 10: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과목: 마태오복음서

대상: 성경에 맞닿고 싶은 분

신청: 당일 접수(수강, 교재비)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교구 성경사목부 말씀 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거제, 통영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8월 19일(금)까지(면담 후 봉사자 활동)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well-dying 교육(교구 연령 연합회 교육분과)

일시: 8월 16일(화) 10:00~12:00

(미사 있습니다.)

장소: 월남동성당 사랑의 집

내용: 어떠한 죽음을 원하는가?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8월 모임

일시: 8월 22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예수회센터 동영상 녹화 강의(사전 녹화본)

내용: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 신약성경과 영성생활-하느님 나라+죄와 구원

· 가톨릭신앙과 영성 다시보기

· 성경대학: 요한 복음 1,2,3

· 이미지를 통한 신비탐구

· 가톨릭 사회교리

· 꿈을 통한 영적 치유

·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kr>

순례로 함께하는 희망의 여정 - 9월애 동행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기간: 8월 15일(월)~9월 25일(주일)

대상: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방법: '순례자 여권세트' 구입⇒천주교

서울 순례길 걸으며 스탬프 찍기⇒

완성한 여권을 '순교자 성월을 달는 미사'에 제출하고 축복장 받기

비고: '순례자 여권세트' 판매금 전액 기부

문의: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02·727·2527~2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artyrs.or.kr)

또는 네이버 "순교자현양위원회" 검색

대구가톨릭대학교 2023 수시모집

· 전국 최대 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 수시 최초 합격자 전원 장학금 지급

- 인문 100만 원, 자연·예체능 150만 원

· 2,556명 수용, 지역 최고 수준 기숙사

문의: 053·850·2580(입학상담)

2023년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일시: 9월 5일(월)~23일(금)까지

모집: 전국 전지역

문의: 충북 청주시 양업고등학교 043·260·5076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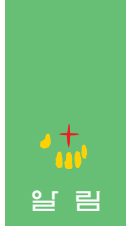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권	8월 20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파크 골프 채 최고의 골프기능 특별할인 기회 NAVER에서 아리랑파크 골프채로 검색 선택 후 010-3599-0745로 연락주세요. 파크 골프 스포츠 대표 김요셉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항공, 숙박, 버스 포함 1인 34만 원 오겹살, 회정식 제공 2인 1실 marcus-1.com(마르코성지순례) 010.5150.2625 마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월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주방 1명, 시설관리 1명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본당 사제 추천서
 접수: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cecomasan@gmail.com)
 문의: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면접 추후 개별 통보

제16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금)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2022-2학기 교구 성경공부 일정

마산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정	과 목
구암동	8월 29일(월) 20:00	일반	마르코 복음서
교 구	8월 30일(화) 10:00	일반	마태오 복음서
월 영	8월 30일(화) 10:00	일반	가톨릭서간·요한 묵시록
	8월 31일(수) 20:10	일반	바오로 서간
월남동	8월 30일(화) 10:00	일반	가톨릭서간·요한 묵시록
	9월 1일(목) 20:00	일반	예언서
산호동	9월 1일(목) 20:15	일반	마르코 복음서
함 안	9월 2일(금) 10:40	일반	바오로서간
상남동	8월 31일(수) 14:00	지혜	예언서2
의 령	8월 31일(수) 10:30	지혜	역사서1
	9월 2일(금) 19:30	첫걸음	오경과 역사서
창원지구			
가음동	9월 1일(목) 10:00	일반	가톨릭서간·요한 묵시록
	9월 3일(토) 10:00	지혜	신약1(마르코)
대방동	8월 30일(화) 10:00	일반	역사서1
덕산동	8월 29일(월) 19:30	일반	오경1
	8월 30일(화) 10:00	일반	마르코 복음서
	9월 1일(목) 10:50	지혜	역사서2
명서동	8월 31일(수) 20:10	일반	예언서
	9월 1일(목) 10:40	지혜	역사서4
반 송	8월 31일(수) 10:40	일반	바오로서간
	9월 1일(목) 10:40	은빛	욥기와 코헬렛
사파동	8월 29일(월) 20:00	일반	오경2
	9월 2일(금) 10:40	일반	요한 복음서
용 잠	8월 31일(수) 19:30	일반	오경2
수 산	9월 2일(금) 10:40	은빛	창세기
중앙동	9월 2일(금) 10:40	은빛	탈출기

진주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정	과 목
가좌동	8월 31일(수) 19:30	일반	오경2
거 창	8월 31일(수) 19:30	일반	역사서1
금 산	8월 30일(화) 10:00	일반	오경1
문 산	8월 29일(월) 19:30	일반	요한 복음서
사 천	9월 2일(금) 10:30	일반	오경1
	9월 2일(금) 19:30	일반	오경1
산 청	8월 31일(수) 10:40	지혜	시서와 지혜서
	9월 2일(금) 19:30	일반	오경2
상평동	8월 31일(수) 19:30	일반	오경2
신안동	8월 30일(화) 10:00	일반	역사서2
옥봉동	8월 31일(수) 19:30	일반	바오로서간
평거동	8월 31일(수) 10:40	은빛	구약2(욥기와 코헬렛)
	9월 1일(목) 20:10	일반	역사서1
함 양	8월 31일(수) 19:30	일반	역사서1
남 해	8월 31일(수) 10:30	은빛	신약2(초대교회와 바오로서간)
거제지구·복지시설			
대 건	9월 1일(목) 10:00	일반	오경1
북신동	9월 1일(목) 10:00	일반	가톨릭서간·요한 묵시록
장 평	9월 2일(금) 10:40	일반	예언서
지세포	8월 31일(수) 19:30	일반	오경2
하 청	9월 2일(금) 10:40	일반	오경1
태평동	8월 31일(수) 19: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9월 1일(목) 10:30	은빛	탈출기
거 제	9월 2일(금) 10:30	은빛	욥기와 코헬렛
고 현	9월 둘째(목) 10:30	은빛	창세기
	월 1회		
작은예수의집	9월 1일(목) 10:00	은빛	탈출기

• 문 의 : 성경사목부 055·249·7025~6



요르단 강을 건너다(여호 3,1-5,12)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예리코로 파견되었던 두 정탐꾼은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정녕 주님께서 저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대한 두려움에 싸여 있습니다.”(여호 2,24) 그러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머물던 시팀이라는 장소를 떠나 요르단 강가로 이동하게 합니다. 우리도 채비를 차리고 그들과 함께 강을 건널 준비를 합시다. 백성의 관리들은 그들이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이 건널 길은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길이기 때문에 안내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뒤따라야 할 안내자는 하느님의 계약 궤와 그 궤를 맨 사제들입니다. 곧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의 현존이 바로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표지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느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뒤따라 걸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백성들은 이천 암마(약 1km) 뒤에서 계약의 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요르단 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이질적인 전승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기에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서로 모순되는 요소들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요르단 강을 건너는 과정은 장엄한 전례 의식처럼 묘사됩니다. 백성과 사제가 하느님을 중심으로 일치하고, 계약의 궤가 그들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영도 아래 일치단결하여 모두 하느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릅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공동체는 요르단 강에서 다시 한 번 하느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그들이 경험한 일이 때마침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의 저자는 수확기 내내 물이 강 언덕까지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 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강물은 독처럼 멈추어 섰고, 아담에서부터 사해로 흘러드는 물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예리코 맞은쪽으로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제들은 강 한복판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히위족, 프리즈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을 쫓아내시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3,10 참조).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지파별로 한 사람씩 사제들이 서 있는 강 한복판으로 들어가 돌 열두 개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밤에 묵게 될 길갈이라는 곳에 그 돌들을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여호 4,9에서는 이 돌 열두 개를 강 한복판에 세워 놓았고, 그것이 오늘날 까지도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전승이 결합된 것임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온 백성이 요르단 강을 건넌 후 주님의 궤와 그 궤를 맨 사제들도 강을 건넜고, 그들의 발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강물은 제자리로 돌아가 전처럼 강 언덕에 넘쳤다고 합니다. 요르단 강의 기적은 갈대 바다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비슷하게 서술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다면, 하느님의 현존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체적인 현실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이러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위한 최종적인 준비로 할례를 받고 과월절 축제를 지냅니다. 그러자 광야의 음식이었던 만나가 멈춥니다. 이는 광야의 시대는 끝이 났고, 새로운 약속의 땅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표지입니다.